

따뜻한 겨울…전남 농작물 생육 비상 ▶2

'무역 사기'에 우는 중소기업들 ▶6

화합의 강, 섬진강-동서통합지대 무얼 담았나 ▶13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19651호 1판 2014년 1월 7일 화요일 (음력 12월 7일)



6일 광주제2순환도로 1구간(두암IC~소태IC) 소태요금소를 차량들이 통과하고 있다. 통행요금은 승용차 기준 1200원이며, 광주시는 오는 9일 해당구간 사업자인 맥쿼리와의 합의에서 승소할 경우 요금을 500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6700억 혈세·전국 민자SOC 방향타

뉴스초점

돈 먹는 하마 '제2순환도로' 9일 항소심 결과 전국이 주목

광주시가 6700억 원대의 '시민 혈세' 유출을 막기 위해 투자펀드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이하 맥쿼리)와의 사실상 마지막 승부에 나선다.

특히 최근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에서 투자를 철회한 맥쿼리가 이번 사업부의 판단에 따라 광주제2순환도로를 비롯한 전국에 투자한 13곳의 사업 철수를 검토했을 가능성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타 차자단체들도 판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6일 광주고등법원에 따르면 맥쿼리의 100% 출자회사인 '광주순환도로로투자(주)'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광주제2순환도로 1구간 자본구조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오는 9일 내릴 예정이다.

광주지법 행정부는 지난 2월 광주시가 광주제2순환도로 1구간 사업자인 맥쿼리로 하여금 자기자본 비율을 현재 6.98%에서 협약 당시 상태(29.92%)로 높이도록 한 감독명령을 적합하다고 판단, 맥쿼리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시는 맥쿼리가 지난 2003년 제2순환도로 1구간 사업지분을 100% 매입한 뒤 타인자본비율을 93.07%로 증가시킨 반면 자기자본 비율을 축소하고, 이자율을 높여 2012년까지 시민 세금으로 마련된 재정지원금만 1393억원을 쟁겨갔다고 주장했고,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다시 말해, 고의로 자신의 재산을 줄여 수익구조를 악화시킨 뒤 자신(맥쿼리)으로부터 10~20% 짜리 고이자율로 돈을 빌려썼다는 것이다.

이는 광주시가 1997년 제2순환도로 1구간 민간투자 협약 당시 조건으로 내건 '적자의 85% 까지 광주시가 보전해 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의 하점을 교묘히 이용한 것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로 인해 맥쿼리의 광주순환도로 투자는 지난 10년 동안 총 2127억원의 수익을 냈음에도 2012년 말 현재 부채(빚) 총액이 2648억원에 달하며 자기자본금은 전액 잠식돼 말 그대로

광주시 승소땐

시민혈세 수천억 지키고

전국 13개 민자사업장

맥쿼리 철수 가능성도

'빈털터리'가 됐다. 반면 대주주인 맥

쿼리에게는 이자로 2615억원을 지금 해 누적 적자액만 1482억원에 이른다.

이들은 또 자본구조 임의 변경으로 법인세 등 22억원의 세금도 회피하고 있다는 게 광주시의 주장이다. 시는 폐소할 경우 계약 종료기간인 2028년까지 5249억원의 혈세를 추가로 맥쿼리에 내줘야 할 형편이어서 이번 소송에 사활을 걸고 있다.

시는 특히 이번 소송을 통해 맥쿼리측이 자본구조 변경에 따른 누적 적자액 1482억원을 법인에 반납하고, 세금 22억원 등도 납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 모든 금액을 합하면 이번 재판에 걸린 시민세금만 6753억원에 이른다.

이에 불복한 맥쿼리는 법무법인 광장과 김&장법률사무소 등 국내 대형로펌 2곳에서 11명의 대규모 변호인단을 선임해 광주고법에 항소한 상태다. 반면 공공기관인 광주시는 민변 소속 등 4명의 변호사로 방어에 나서 '꼴리앗과 디윗의 싸움' 양상이다.

행정소송의 경우 1, 2심에서 승소하면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추세로, 이번 판결 결과가 사실상 최종심이라는 점에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광주시의 이번 소송은 강운태 광주시장이 취임하면서 제2순환도로 재정보전금으로 오는 2028년까지 매년 200억 이상의 세금이 투입된다는 업무보고를 받은 뒤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도록 시지해 시작됐다.

시는 승소 시 현 1200원(승용차 기준)인 제2순환도로 1구간 통행요금을 최소 500원까지 내리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시 관계자는 "법의 빈틈을 교묘히 이용해 사회간접자본을 민간 투자자의 것으로 만들고, 그 과정에서 생겨난 적자는 국민의 세금으로 채워나가는 수익구조를 고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에서 광주와 마산의 전당 건립 계획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통일은 대박…설 맞아 이산가족 상봉해야"

박근혜 대통령 신년 정국구상 기자회견… 개헌·특검·개각 부정적 입장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는 한편 "통일은 대박이라고 생각한다"며 설 맞이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했다. 〈관련기사 3·4·5면〉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한 취임 첫 기자회견 및 신년 정국구상 발표에서 "국민 여러분이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세우고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국민 행복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3대 추진 전략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는 개혁을 통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고 ▲창조경제를 통해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만들며 ▲내수를 활성화해 내수와 수출이 균형 있는 경제를 만들겠다고 소개했다.

박 대통령은 먼저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개혁과 관련, "불합리한 점들을 바로잡고,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상화와 재정·세제 개혁, 원칙이 바로 선 경제를 주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증세에 대해서는 "규제 개선을 통해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고 그래서 많은 투자가 이뤄지도록 먼저 노력한 후에 그래도 재원이 부족하다고 하면

고 갑자기 취소된 것은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었다"며 "이번 설을 맞아 이제 지난 60년을 기다려온 연로하신 이산가족들이 상봉하도록 하자"고 북한에 제안했다.

또 남북 정상회담 개최 여부에 대해 "북한 지도자를 언제든 만날 수 있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회담을 위한 회담이 돼서는 안 된다"며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회담이 되고 그런 환경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정치적 이슈인 개헌과 특검, 개각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확실히 했다. 또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제안한 사회적 대타협위원회 구성 제안에 대해 "기존에 이미 있는 것이 잘 안 된다고 자꾸 위원회만 만들고 해서는 큰 성과를 볼 수 없다"면서 "올해 정말 중요한 노사정 대타협(기존 노사정위원회) 여기서 잘 이뤄나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야 한다"며 사실상 '거절' 의사를 밝혔다.

한편 정부는 박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설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재개하고 이에 앞서 이 문제를 논의할 적십자 실무접촉을 오는 10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갖자고 북한에 공식 제의했다.

/박진표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주의 전당 건립 예산 348억원 전액 삭감

광주시 사업계획 수정 나서

광주와 서울, 마산 등 3개 지역으로 분산 설치될 예정이었던 한국 민주주의 전당 건립 사업이 정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차질을 빚게 됐다.

광주시는 올해 정부 예산 확보에 실패함에 따라 민주주의 전당 사업 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국가 예산 주가 반영을 반대했기 때문이다. 또 전당이 서울에만 건립될 것을 우려한 일부 지역 국회의원들이 정부 예산 148억원의 통과마저 막으면서 전액 미반영됐다.

광주시는 올해 정부 예산 확보에 실패함에 따라 민주주의 전당 사업 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대책 마련에 들어간 상태다.

시는 올해 말 북구 삼각동으로 이전하는 흔적동 광주교도소 부지(10만 8423m²)를 법무부로부터 무상양여 받아 민주주의 전당을 건립할 계획이 있지만, 예산 확보 실패로 건립 계획을 다시 짜야할 형편이다.

여기에 법무부에서 호남지역에 구

치소가 한곳도 없다는 논리를 들어 광주교도소 부지 일부에 구치소를 건립할 것을 우려한 일부 지역 국회의원들이 정부 예산 148억원의 통과마저 막으면서 전액 미반영됐다.

광주시는 올해 정부 예산 확보에 실패함에 따라 민주주의 전당 사업 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대책 마련에 들어간 상태다.

시는 올해 말 북구 삼각동으로 이전하는 흔적동 광주교도소 부지(10만 8423m²)를 법무부로부터 무상양여 받아 민주주의 전당을 건립할 계획이 있지만, 예산 확보 실패로 건립 계획을 다시 짜야할 형편이다.

여기에 법무부에서 호남지역에 구

2014년도 제22기

보육교사교육원

학생모집

~ 2014년 1월 10(금)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062-605-1112

www.dorip.ac.kr

100만원 이하 등록금 실현

전남도립대학교

왜! 전남도립대학교를 선택해야 하는가?

- » 100만원 이하 등록금 (인문계 86만원, 이공계 99만원)
- » 산·학·관 협조체제 구축으로 100% 취업 지원
- » 풍부한 장학혜택 (수혜율 100% 이상)
- » 광활한 시설의 기숙사 (학기당 20만원)
- » 광주 및 전남·북 인근지역 무료 통학버스 운행 (경주간 서울·전주 노선버스 운행)

교육부
『전문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4년 연속 우수대학 선정(08~11년)
국제표준 ISO 10015 취업교육인증대학선정(2012년)

전라남도가 설립·운영하는
호남 유일의 공립대학! 전남도립대학교

* 3년제 * 토목환경공학과는 학사학위 전공선택과정

517-802 천남 담양군 담양읍 축축원로 152
Tel. 061-380-8462 ~ 5 Fax. 061-380-8508
입학상담문의 : 061-380-8462 ~ 5



전남도립대학교
Jeonnam Provincial College

517-802 천남 담양군 담양읍 축축원로 152
Tel. 061-380-8462 ~ 5 Fax. 061-380-8508
입학상담문의 : 061-380-8462 ~ 5